

배포 일시	2022. 10. 13.( 목 )			
담당 부서 <총괄>	주거복지정책관 공공주택정책과	책임자	과 장	이소영 (044-201-4539)
		담당자	사무관	최효준 (044-201-4580)
보도일시	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		

## 저렴한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

< 보도내용('22. 10. 13. 한국경제) >

- ◆ 원희룡은 “PIR 10배” 말하는데...공공분양은 ‘최대 18배’
  -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창구인 공공분양주택 분양가도 3분위 가구 연소득 10배 초과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부담 완화와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시세 대비 저렴한 공공분양주택을 지속 공급하고 있습니다.
  - '21년 공급한 공공분양주택(LH 기준)의 전국 평균 호당 분양가는 3억 7,000만원으로 기사에서 제시된 소득기준에 따르면 PIR 6배 수준입니다.
  - 기사에서 언급된 일부 사례들은 전국 대비 집값이 높은 수도권 지역으로 전체 공공분양주택을 대표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, 공공분양주택은 대부분 주변 시세의 60~80% 수준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.
-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저렴한 공공분양주택이 지속 공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.